

3천만원대 캠리 등 도요타 4종 한국 상륙

국내업체 “안방 내줄라” 바짝 긴장

외제차 선호 높은 광주 내년 하반기 진출

글로벌 1위 자동차 회사인 도요타가 20일 우리나라 시장에 공식 진출하면서 광주·전남 자동차 시장도 긴장하고 있다. 이번 진출은 이미 국내 시장에서 선보인 렉서스가 아닌 ‘도요타 브랜드’로 3천만원대의 대중차 시장을 공략한다는 것이어서 기아차 등 완성차 업계에 작지 않은 파장을 예상된다.

한국도요타자동차는 이날 서울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신차발표회를 갖고 도요타 브랜드의 국내 판매를 개시했다.

이날부터 판매에 들어간 도요타 모델은 모두 4종으로, 중형 세단 캠리(3천490만원), 캠리 하이브리드(4천590만원), 하이브리드 전용 모델 프리우스(3천790만원), 준중형 스포츠 유트리티차량인 RAV4(2WD 3천210만원, 4WD 3천490만원) 등이다.

배기량 2천500cc의 캠리의 국내 판매가격은 3천490만원, SUV로 2.5ℓ 인 RAV4도 2륜 구동의 경우 3천210만원, 4륜 구동이 3천490만원 수준으로 책정됐다.

그렇지 않아도 광주 수입차 점유율은 3.2% 수준으로 광주·전남 점유율도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 특히 광주는 기아자동차의 도시라고 할 수 있는데도, 기아차 점유율이 36.7%에 그치고 있다. 현대차가 42.8%로 1위, 르노삼성은 9.8%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한 매력 요인으로 꼽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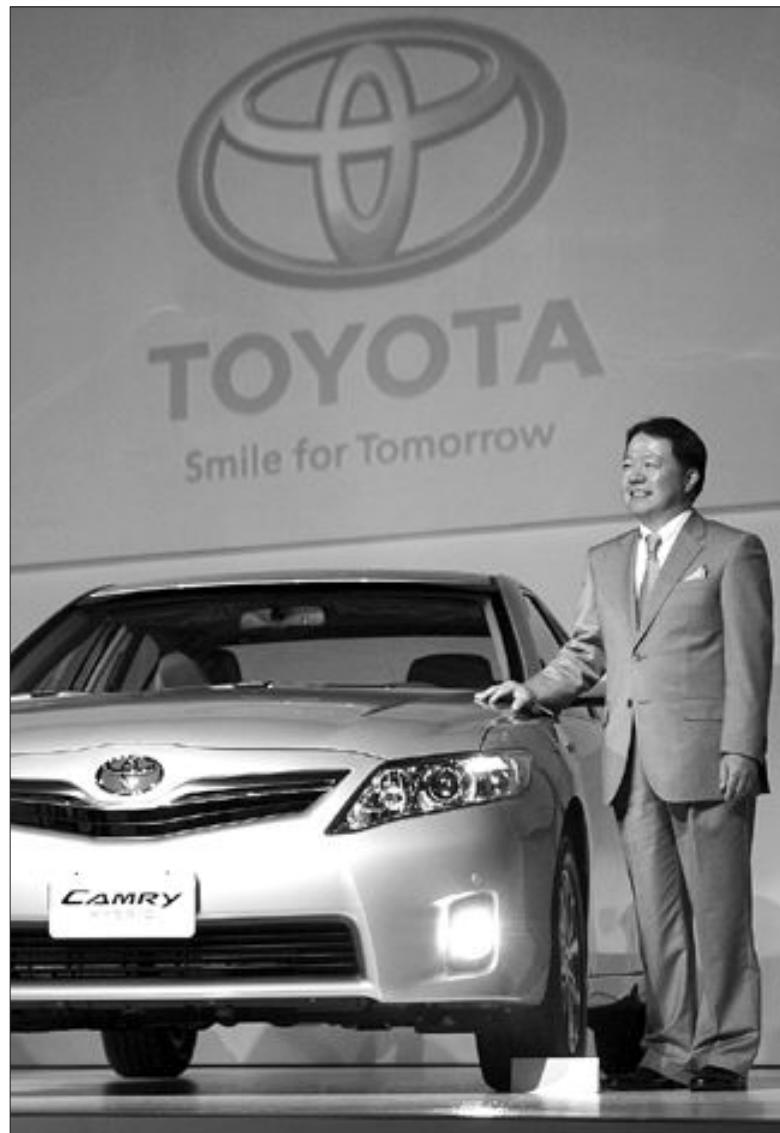
특히 가격대로만 보면 캠리는 수입 차로는 혼다 CR-V, 낫산 로고, 현대 그랜저(Q270 럭셔리 3천19만원, Q270프리미어 3천247만원 수준)와, RAV4는 기아차의 쏘렌토R(2.2 디젤 2륜구동 2천630만~3천615만원) 등과 경쟁을 벌일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이다.

업계는 당장은 시장 변화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도요타가 천천히 시장 점유율을 높이는 중장기 전략을 모색하는데다, 광주 전시장을 내년 하반기이나 개설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도요타가 내년 하반기 전시장 개설과 함께 본격적인 마케팅에 들어가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도요타가 지난달 14일부터 최근까지 40 일도 채 안 된 기간에 도요타 브랜드를 사전예약한 대수가 1천800대에 이를 정도로 시장에서의 인기는 높다.

그렇지 않아도 광주 수입차 점유율은 3.2% 수준으로 광주·전남 점유율도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 특히 광주는 기아자동차의 도시라고 할 수 있는데도, 기아차 점유율이 36.7%에 그치고 있다. 현대차가 42.8%로 1위, 르노삼성은 9.8%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김지기 기자 dok2000@kwangju.co.kr



세계 1위의 자동차 업체인 도요타의 공식 론칭 행사가 20일 오전 서울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열렸다.

전남 中企대출 역주행

금융위기 속 28조 증액 불구 전국 유일 감소

정부가 금융위기 이후 총액한도대출을 대폭 늘리고 금리를 내렸는데도 전국에서 유일하게 전남지역 중소기업대출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김효석 의원은 20일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지난해 9월 금융위기 이후 한국은행의 총액한도대출률 6조5천억원에서 10조원으로 3조5천억원 증액했는데도 전남지역 중기 대출은 16개 시·도중 유일하게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총액한도대출은 중기대출 확대와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해 한국은행이 일선 은행에 낮은 금리로 자금을 지

원하는 정책금융으로 일종의 중기대출을 대폭 늘리고 금리를 내렸는데도 전국에서 유일하게 전남지역 중소기업대출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은 8월말 414조874억원이던 것 이 올해 8월말 현재 442조989억원으로 7% 늘었다. 그러나 서울은 9.28% 증가한 반면 서울을 제외한 지역은 5.5% 증가하는데 그쳤고 특히 호남권은 0.63%로 거의 늘지 않았다.

지역별로는 광주의 경우 0.35%, 전북은 2.39%로 다소 증가했으나, 전남은 오히려 7.82%에서 7.60%로 1.09% 감소했다. 서울을 제외

한 전국 중기대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8%에서 2.6%로 내려 앉았다.

한국은행은 5조원에 대한 서울이외 지역별 대출실적도 2007년말 4조9천500억원으로 150억원 줄어든 가운데 광주·전남과 목포본부 비중은 각각 6.7%와 1.6%로 두자릿수를 기록한 부산, 대구·경북, 인천, 경기에 비해 턱없이 낮았다.

정부는 더구나 총액한도대출을 증액하면서도 금리도 3.5%에서 1.25%로 2.25%포인트 과격 인하했다는 점에서 광주·전남지역 중소기업들은 대출 총액에서는 물론 금리에서도 차별을 받은 셈이 됐다.

/정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베트남산 ‘츄파춥스’ 사탕

유통기한 변조 대량 유통

유명 수입사탕의 유통기한을 변조해 대량 유통시킨 업체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유통기한을 변조한 ‘츄파춥스’ 사탕 1천350박스(1만9천440kg)를 학교주변 등에 유동시킨 수입업체를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경기도 오산 소재 경승유통은 4차례에 걸쳐 베트남산 췌파춥스 사탕 1천740박스(2만5천56kg)를 수입한 후 유통기한을 ‘2011년

4월10일’로 변조하고 수입업체를 다른 업체로 하위 표시해 1천350박스를 전국에 유통시켰다.

식약청은 해당 제품에 대해 판매금지 및 회수 조치하고 경승유통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회수 대상 식품은 부산시 사하구 소재 ‘해팜상사’가 수입한 것으로 표시돼 있으며 한글제품명은 ‘츄파춥스’(유통기한: 2011년4월10일)로 돼있다.

/연합뉴스

‘우주 여행’

경품 등장

롯데百창립 30돌 기념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기업의 마케팅 경품으로 ‘우주 여행권’이 나왔다.

다음달 15일로 창립 30주년을 맞는 롯데백화점은 10월과 11월을 창립 축하기간으로 정해 이 기간 우주 여행권을 비롯해 6억 원짜리 아파트, 108일간의 세계일주 크루즈 등 고급 경품을 대거 내걸고 대대적인 창립 기념 마케팅을 벌인다고 20일 밝혔다.

경품 행사 응모자 중 1등 1명에게 주어지는 우주 여행권은 민간 우주 여행사의 우주선을 타고 약 3시간 동안 지구상공 112km에서 지구를 내려다보며 무중력 상태를 경험해보는 것이다.

금액으로 3억 원어치에 해당하는 이 경품에 당첨되면 3개월 간의 우주훈련을 받은 뒤 내년 하반기에 우주선에 탑승하게 된다.

만일 당첨자가 우주여행을 원치 않을 경우 108일간의 크루즈 여행을 선택할 수 있다.

/연합뉴스

“美 쇠고기 창자 부실 검역”

민주당 의원 국감 지적

유럽연합(EU)은 특정 위험물질(SRM)로 분류하고 있는 쇠고기 창자(내장)가 충분한 검역을 거치지 않은 채 수입됐다는 지적이다.

민주당 조배숙 의원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수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미국산 쇠고기 창자가 육안검사만 실시하고 해동검사, 조직검사는 하지 않은 채 그대로 수입됐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경기도 대장면 EU에서 SRM에 포함시키고 있으며 특히 한-

미 쇠고기 협정에서도 SRM으로 분류된 소장 끝 회장원위부 제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로 논란이 됐던 부위”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도 ‘축산물 위생안전관리 및 축산업 발전 대책’에서 ‘혀와 내장(소장, 대장)은 관동검사에 이상이 없어도 반드시 해동검사 및 조직검사 실시’라고 해 해동검사를 할 계획이었다”며 “그러나 실제로는 대장을 수입하면서 해동검사는 전혀 없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이는 미국의 눈치를 보고 있기 때문”이라며 “조직검사 방법 등에 대해 미국과 협의 중이라고 하지만 한마디로 독자적인 검역권을 상실했다는 얘기”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기아차 유럽시장 첫 2%대 점유

저탄소 배출 경차 등 인기 9월 2만7천여대 판매

기아차가 해외 유력 자동차 업체들의 각축장인 유럽 시장에서 점유율을 꾸준히 끌어올리고 있다.

20일 유럽자동차공업협회(ACEA)에 따르면 지난 달 키프스, 몰타를 제외한 유럽연합(EU) 25개국과 아일랜드, 노르웨이, 스위스 등 28개 유럽 국가에서 기아차는 작년 9월보다 35.3% 증가한 2만7천465대를 판매했다.

이에 따라 기아차의 월별 유럽 시

장 점유율은 2.0%를 기록해 사상 처음으로 ‘2%대’에 올라섰다.

2007년과 지난해 기아차의 유럽 시장 점유율은 1.6%에 머물러 있었다.

올해 1월 1.6%로 시작했던 점유율을 최근 2%까지 지속적으로 상승시킬 수 있었던 것은 기아차가 유럽 각국의 자동차 관련 시장을 잘 활용하면서 영업망을 강화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유럽 각국에서 노후차를 폐차하고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차를 구입하면 보조금을 지급하는 정책을 실시한 점을 감안해 경차 및 중소형 차 중심의 판매 전략을 구사했던 것이다.

오픈 등 해외 업체에 속한 우수 딜러들을 적극 영입해 경쟁력 있는 딜러망을 갖춘 점도 기아차가 불황이 이어진 유럽 자동차 시장에서 점유율을 높일 수 있었던 배경으로 꼽힌다.

한편 지난달 현대차는 작년 동기대비 53.7% 증가한 3만4천943대를 판매했다.

매출액은 17억 11억8천만 원으로 3.3% 증가

현대·기아차의 지난달 유럽 시장 점유율은 4.5%이며 폴크스바겐, 푸조-시트로엥, GM, 피아트 등에 이어 점유율 순위 9위를 기록했다.

/연합뉴스

※수치는 전일 증가 기준



※수치는 전일 증가 기준

부동산 경매 전문회사

주식회사 에셋코리아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714-73 [법원 앞에서 70m 번호사회관 옆 건물] 또는 [지산 주유소에서 법원 쪽으로 20m]

assetkorea.com = 전국 2만여 건의 경매물건리스트 / 변호사 무료 법률상담 / 경매전문가 무료상담

최고수익률 / 세금계산서발급(양도세세감면) / 신속한명도 / 정확한권리분석 / 최상의대출

에셋코리아에서는 품평하게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수익성 있는 우량물건만을 추천합니다.

경매에 관한 모든 상담

062)236-3400

근현사례/법률 대표이사 010-7570-7525

속학사례/상가 대행수령장 010-4840-2142

경매/토지 경매에 010-5870-0005

소재지 대지/건물 갑경기 초지가 비고

소재지 대지/건물 갑경기 초지가 비고

소재지 대지/건물 갑경기 초지가 비고

생활동 [아파트부지]

2층 100평거주주택 240㎡

고지 12억 100평

매매가 12억 100평

대 010-7570-7525

월동 []

59평 3억 5천 3억 5천

건물만각

매매가 12억 5천

대 010-7570-7525

화정동 []

59평 3억 5천 3억 5천

건물만각

매매가 12억 5천

대 010-7570-7525

신이동 []

59평 3억 5천 3억 5천

원 21개 ROOM